

# 일본판 국정농단 ‘아베 스캔들’ 장기화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 확산  
10명 중 7명 “정부 해명 불신”  
국회 청문회·검찰 수사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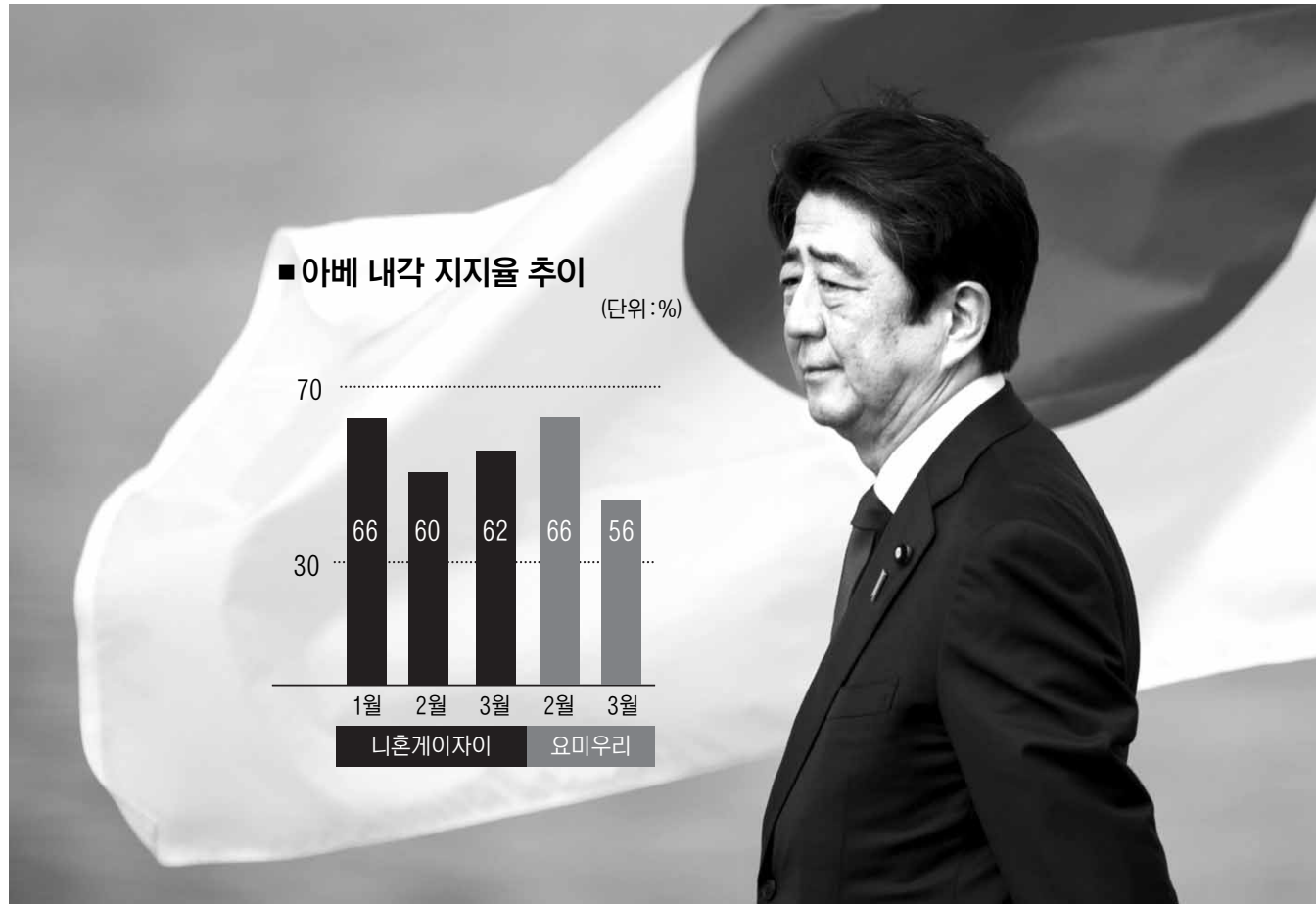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사카(大阪) 사학의 국유지 헐값 매입 문제와 관련해 일본인 10명 중 7명은 정부 측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 개입은 물론이고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국민 상당수는 이를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4~26일 TV도쿄와 전국 18세 이상 남녀 94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가 정부 측 설명에 대해 ‘납득 못한다’고 답했다. 납득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신문은 앞으로 정부 측 설명 책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도통신이 지난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이 근거가 없다는 아베 총리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2.6%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이번 니혼게이자이 조사에선 지난달보다 2% 포인트 상승한 62%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강경 대응 의사를 재차 밝혔으며 19~22일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순방하고 대북 문제와 자유무역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



는 행보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보합’세를 보였으며 지난 1월(66%)과 비교하면 4% 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선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과 비교하면 10%포인트나 낮아진 56%로 집계됐다.

이는 아키에 스캔들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을 보여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컸다. 이밖에 3월 들어 아베 내각

의 지지율은 여론조사를 주관한 언론사에 따라 1.4~8%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45%로 여전히 높았고 제1야당인 민진당은 8%에 그쳤다. 각각 지난달보다 1%포인트 감소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국민은 이번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의 추궁은 당리당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키에 스캔들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진·공산·자유·시민 등 야 4당은 아키에 여사를 국회 증인으로 불러 심문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사카부는 문제의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추진하던 총동학교 건립비를 지원받기 위한 건축비를 부풀려 하위계약서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사태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 중국 “캐리 램 홍콩행정관 당선 적법”

간접선거 반발 여론 의식

중국 당국이 캐리 램(林鄭月娥·59·여·사진) 제5대 홍콩행정관 당선인이 공개적이면서 공평,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당선인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2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관공실은 전날 치러진 선거와 관련한 담화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제5대 행정장관 선거위원회는 법에 따라 캐리 램을 제5대 행정장관으로 선출했다”며 “이번 선거는 홍콩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결정, 홍콩특별행정구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선거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유독 강조한 것은 ‘체육관선거’로 불리는 간접선거 방식 선거에 반대하는 범민주파 세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범민주파 세력은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친중(親中)파 캐리 램이 당선되자 홍콩 주권반환 20주년 기념일이자 신임 행정장관 취임식이 열리는 7월 1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람 당선인은 여론 조사에서는 경쟁 후보에 크게 뒤졌으나,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간선 선거인단 1200명의 과반을 웃도는 777표를 얻어 365표를 확보한 존 찰(曾俊華) 전 재정사장(재정장관 격)을 누르고 차기 행정장관에 선출됐다.

연합뉴스

## “김정남 시신, 화장 뒤 북한 인도”

말레이 언론 보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북한 김정남의 시신이 지난 26일 이미 영안실에서 반출됐으며 화장을 마치고 북한측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레이시아 중문 매체 중국보(中國報)가 27일 보도했다.

중국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쿠알라룸푸르 중앙병원 영안실에 40일간 안치됐던 김정남 시신이 어디론가 옮겨졌고 화장터로 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26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간) 병원 영안실 안팎에 사복경찰관 여러명을 배치한 뒤 영구차 한 대를 영안실 제한구역으로 진입시켰고 이 영구차는 30분 정도 머물렀다.

감독관들은 영안실 경비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시신을 옮겼고 그 과정에서 영구차 안에서 뭔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영구차는 오후 1시 58분께 병원 영안실을 출발했다. 영구차가 떠나 뒤 미리 대기 중이던 차량이 그 뒤를 따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알라룸푸르 중앙병원 영안실에 취재진 20여명이 몰려 들었고,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소식통들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의 시신을 자오라이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뒤 현지에서 북한 특사들에게 유골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도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27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말레이시아가 27일 김정남 사체 처리 문제, 말레이시아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적 용의자들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수나라 초대 황제 양견

양견(楊堅, 541~604)은 수나라의 초대 황제로 589년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해 300여년의 분열 시대를 마감했다.

그는 수국공 양충의 아들로 현재의 섬서성 위남현에 해당하는 흥농현을 출신지이다. 후한의 명신 양진의 14세 손으로 알려져 있다. 부친인 양충은 서위의 실력자 우문태의 측근으로 북주 정권을 창출하는데 공을 세웠다. 주건의 공격 덕분에 대장군이 되었고 주국으로 승진했으며 부친의 작위인 수국공을 세습하였다. 한쪽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친이 보록여(普六茹)라는 선비계의 성을 하사받은 기록으로 볼 때 집안이 원래 선비계였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지는 구품관인법에 따라 중정(中正)이라는 관리가 문벌에 따라 관리를 추천했다. 그해 전국에서 600명을 추천받아 특별시험을 치러 관리로 발탁했다. 이때부터 과거라는 시험 지옥이 시작되었다. 북위·북주로부터 이어진 부병제와 균전제를 대폭 보완하고 강화했다. 왕조의 경제·군사적 토대가 굳건해졌다.

589년 남조의 진나라를 정벌해 멸망시켰다. 이로써 오랜 분열 시대를 마감했다. 진나라의 진속보는 장강의 이점을 믿고 수나라의 남침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다. 진황제는 조신에게 “왕의 기운이 이곳에 있다. 제의 군대가 3번 쳐들어오고, 주의 군대가 2번 쳐들어 왔으나 꺾이고 실패했다. 저들이 무엇을 하겠는가?”라며 깊이 대비하지 않았다.

## 중국 재통일 300년 분열시대 마감

장녀가 북주 선제의 비가 된 까닭에 황실의 외척이 되어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선제는 제위에 오르자 주색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공신들을 이 유 없이 제거했다. 이에 따라 북주 정권이 위기에 빠졌다. 즉위 다음해 일곱 살에 불과한 태자 우무연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후일은 모두 세력한 웃을 입게 했다. 이에 따라 나라의 창고가 가득 찼다. 제위 초기 400만호인 호구가 말년에는 8백99만호로 늘어났다. 그러나 시기심이 강하고 잔인하며 가혹하게 정권을 잡았다. 581년 정제로부터 양위를 받아 수 왕조를 창건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그는 성품이 엄격하고 신중했다. 정사에 부지런해 새벽마다 조정에서 정사를 살피고 해가 기울어도 피곤한 줄 몰랐다. 백성을 잘 돌보고 농사와 잡업을 살피고 부역과 세금을 경감했다. 특히 검소하여 수레, 의복, 사용하는 물건 중 낡고 피폐해진 것들을 수시로 꿰매서 사용했다. 후궁들은 모두 세력한 웃을 입게 했다. 이에 따라 나라의 창고가 가득 찼다. 제위 초기 400만호인 호구가 말년에는 8백99만호로 늘어났다. 그러나 시기심이 강하고 잔인하며 가혹하게 정권을 잡았다. 581년 정제로부터 양위를 받아 수 왕조를 창건했다.

정나라의 사가 조익은 그를 평하여 “애로부터, 천하를 얻기에 수 문제와 같이 쉬었던 일이 여지껏 없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쉽게 대권을 차지한 것이다. 이렇듯 반대세력이 없어 천하를 손쉽게 움켜잡을 수 있었다. 그의 처 독고씨는 북주의 종신인 독고신의 넷째 딸이다. 당왕조를 창시한 고조 이연의 모친은 독고신의 아홉째 딸이다. 수·당 왕조의 외척에는 선비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황제에 취임하자 과감히 개혁에 나섰다. 주·군·현의 지방조직을 주·현으로 이원화했다. ‘백성은 적고 관은 많다’는 비효율을 뜯어고쳤다. 과거 제도 개혁이야말로 그의 영단이었다. 587년 과거시험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 상가 건물 매매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 투자 전문

<h3>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h3> <p><b>전원주택 강력추천</b></p> <p>■ 광주에서 40분</p> <p>■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p> <p>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p> <p>◆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p>	<h3>동구 수기동 상가매매</h3> <p>20층 중 6층 ◆ 평수 45평</p> <p>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차 완비</p> <p>■ 보 1천만~월 70만</p> <p>▶ 시세 1억6천 매가 1억3천(용5천)</p>	<h3>상무지구 상가매매</h3> <p>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p> <p>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p> <p>보 500만 월 44만</p> <p>◆ 매가 8천 300만</p> <p>■ 목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p> <p>■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p> <p>■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관망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p>	<h3>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h3> <p>■ 동구 수기동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p> <p>금남로 4가, 5가역 2분 ▶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p> <p>■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p> <p>■ 남구 주월동 (상가주택) 토 50평 건 27평</p> <p>장산초등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9천8백</p> <p>■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 월수익 1,000만이상 / 문선역 1분 ▶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p> <p>■ 수완지구 (1층 식당상가) 토 74평, 건 47평 수완지구 국민은행 뒤 주차 완비 / 식당 최고 자리 ▶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p>
--	---	--	---